

충남 투자통상 분야의 전망과 과제*

김양중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충남의 투자통상정책이 한발 앞서가기 위해서는 국제통상환경질서에 순조롭게 부응하는 새로운 투자통상방향과 비전제시가 필요하다.

2009년은 글로벌 경제위기 하에서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려운 한해였다. 그러나 2009년 후반기부터 세계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경기지표들도 국내 경기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충남은 2010년을 새로운 도약의 시기로 삼고 보다 먼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세계 경제지표, 국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 충남 투자통상의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투자통상 전략을 투자유치, 국제협력, 통상지원의 3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I. 충남 투자통상 목표

목표설정은 정책을 이끄는 등대이며 목표가 없다면 충남의 투자통상정책은 망망대해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충청남도도 미래 성장동력산업 중심의 투자유치, 통상지원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한 수출확대, 미래자원 확보를 위한 실리외교와 민간교류 확대 및 대백제전 성공지원·인삼엑스포의

*본 내용은 "충남 투자통상의 장단기발전방향" 워크숍의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성공개최 등을 통해 새로운 투자통상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2010년, 장기적으로는 2020년까지의 충남의 투자통상의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충남의 수출

2010년은 중국의 경기회복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상품의 수출호조로 충남은 수출 420억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의 수출 1위와 2위 품목은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이며 전국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충남수출에 있어 호조이며 중국의 경제회복은 충남의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기준성장하(6% 성장)에서 충남은 2015년경 560억불, 2020년경 750억불 수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고성장하(7% 성장)에서 2015년경 600억불, 2020년경 930억불 수출당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저성장 시대가 예상되나 과거 연평균 12%의 고성장을 이룩하였던 저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충남은 2020년경 1,000억불 수출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2) 충남의 농식품 수출

충남은 2008년 3.5억불의 농식품 수출을 달성했으며 2009년 4억불의 농식품 수출이 예상되고 있다. 기준성장하(6% 성장)에서 충남은 2010년경 4.3억불, 2015년경 5.9억불, 2020년경 7.5억불 수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고성장하(7% 성장)에서 2010년경 4.3억불, 2015년경 6.2억불, 2020년경 8.4억불 수출당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까지 농식품 수출 100억불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충남 또한 정부의 계획에 발맞추어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

충남의 1,2위 수출품목인 인삼과 배가 정부의 농식품 100억불 수출 달성을 위한 집중육성 품목이며 충남의 농식품 1위 수출국인 중국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 2010년 5억불 수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이 정부목표에 부응하려면 2020년 10억불 이상 수출을 달성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목표

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나 충남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을 선도하는 지역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도전해 볼만한 목표이다. 충남 농식품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부와 충남도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충남의 외자유치

세계적인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2009년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는 125억불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D)에 따르면 2010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는 16.7%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2009년 충남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충남도의 적극적 유치노력과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및 원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2009년 9월 현재 15.4억불로 이미 2009년 목표치인 13억불을 넘어섰으며 세계투자보고서의 예측을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충남은 2010년에 15억불, 2012년에는 20억불 이상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UNCTAD가 241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우리나라는 매력적 투자유치지역에서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충남은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도와의 치열한 유치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목표치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에 따른 기업의 투자심리 저하 등 불안요소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국가발전전략산업 및 지역적으로 경쟁우위 창출에 적합한 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II. 충남 투자유치 전략

외국인 투자유치는 국제수지의 안정, 선진기술이나 경영노하우 습득, 고용창출 등에 기여하며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각 시도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을 지정하고 치열한 투자유치전을 치루고 있다.

2008년 기준 충남내 지역별 외국인 투자건수를 살펴보면, 충남내 15개 지역 중 천안, 아산,

당진을 제외한 12개 지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1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1〉 충남지역 외국인 투자유치현황 (2008년 1월 기준)

| 계 | 천안 | 공주 | 보령 | 아산 | 서산 | 논산 | 금산 | 연기 | 부여 | 서천 | 청양 | 홍성 | 예산 | 태안 | 당진 |
|-----|-------|------|------|-------|------|------|------|------|------|------|------|------|------|------|------|
| 200 | 97 | 7 | 6 | 44 | 6 | 7 | 2 | 9 | 1 | 1 | 1 | 3 | 4 | 1 | 11 |
| % | 48.50 | 3.50 | 3.00 | 22.00 | 3.00 | 3.50 | 1.00 | 4.50 | 0.50 | 0.50 | 0.50 | 1.50 | 2.00 | 0.50 | 5.50 |

현재 충남지역의 외국인 투자 분포는 충남내 지역간 격차가 상당히 심한 편이며 이로 인한 지역내 균등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충남지역에 소재를 두고 있는 상장기업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외국인보유주식 수, 외국인주식보유율)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전략 사업과의 연계도 부족한 편이다.

현재 충남이 추진하고 있는 4대 전략사업은 전자 정보기기, 자동차 부품사업, 첨단문화사업, 농·축산 바이오사업이나 전자 정보기기, 자동차 부품사업 이외에 첨단문화사업과 농·축산 바이오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표 2〉 충남지역 업종별 외국인 투자유치현황 (2008년 1월 기준)

| 계 | 자동차 부품 | 전기전자 가스제조업 | 석 유 화 학 | 기계장비 제 조 업 | 서비스 | 비금속 광 물 제조업 | 의 약 제조업 | 식 품 제조업 | 기 타 |
|-----|-----------|---------------|------------|---------------|------|----------------------|------------|------------|------|
| 200 | 38 | 72 | 4 | 4 | 10 | 8 | 2 | 5 | 18 |
| % | 19.00 | 36.00 | 2.00 | 21.50 | 5.00 | 4.00 | 1.00 | 2.50 | 9.00 |

1) 신성장동력 선도산업 위주 유치

투자유치가 지역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신성장동력인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수출중대 및 수입대체 위주의 사업, 환경친화적 에너지절약형 사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해야 하며 아울러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서비스 또는 사회후생차원의 사업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외국인 투자유인전략과 실천매뉴얼 작성

외국인 투자유인전략은 전략수립과정, 전략의 실행 및 평가과정, 사후관리 과정 등을 거쳐 추진해야 하며 사후관리과정은 후속투자의 중요한 관건이 되므로 기존 외국투자유치기업의 애로사항 파악과 이의 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등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인 투자유인전략체계 매뉴얼을 추진 프로세스별로 작성하고 추진인력과 필요자원 등 조직화 요인들도 함께 제시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조직화방안 강구

외국어에 능통하고 관련 유치업무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구성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부 투자유치 조직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외국인 유치 전문 컨설팅업체를 발굴하여 협력자로 활용하고 해외 홍보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해외투자유치 광고 및 홍보를 전담할 글로벌 전문 광고대행조직을 활용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기관을 활용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4) 충남지역 특화산업정책과 연계전략 수립

지역특화전략의 경우 정부의 자금, 판로지원 등 관련 특혜가 많은 만큼 적극적인 투자유인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 충남이 추진하고 있는 4대 전략사업은 전자·정보기기, 자동차 부품 사업, 첨단문화사업, 농·축산 바이오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강화해야 하며 전략사업의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외국인 투자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연구소와 각종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벤처캐피털, 컨설팅 등의 기관이 한 곳에 모여 있어 정보와 지식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5) 국내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투자지속 및 확대 방안

국내기술이 부족한 수입대체품목의 해외 제조사를 충남에 유치함으로써 국내 소재산업의 기술 파급효과의 증대 및 관련기업의 기술선진화를 유도하고 외국인 투자기업과 합작 및 전략적 협력을 통한 투자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효율성 증대를 위해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부품 및 소재연계지원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활용화를 추진해야 한다.

6)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센터(Research & Development Center)의 유치

외국 기술 선도기업의 연구센터의 기능은 결국 산·산기술 협력을 연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며, 동시에 현지의 기초연구기관이나 국내기업의 기술제공자로서의 기능을 한다.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시 국내 고급 기술인력의 수준향상과 동시에 새로운 전문 기술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7) 투자유치를 통한 품질개선 및 선진 경영관리의 파급 및 전수

성공적인 외국인 투자와 함께 병행해야 할 정책적 과제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도입해야 할 경영기법이나 노하우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상호 전략적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필요 정보공유 및 교육 세미나를 통해 외국 선진 관리기법을 배우고 이러한 지식경영을 유도·촉진시켜야 한다.

8) 투자유치에 대한 성과평가

기존 해외투자유치 마케팅 및 성과결과에 비용 및 수익(편익)에 대한 평가를 통한 투자관련 조직에 대한 보상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해외투자유치 조직과 공로자에 대한 포상실시로 동기부여를 마련해야 한다.

9) 기타 투자유치방안

국내 유망 발명제품에 대한 해외 투자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외투자유치성공에 따른 성공사례의 영어판 및 영어사이트를 만들어 전문 홍보 및 광고대행사를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정책도 필요하다.

Ⅲ. 국제협력을 위한 전략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충남은 국제교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일부 지역에 편중된 지역교류를 다변화해야 한다. 충남은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통해 지역의 홍보와 FTA 체결확대 등 세계 무역질서개편에 따라 변화된 시장을 선점하고 지역상품의 수출을 지원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장에서는 충남의 국제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전략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교류대상 국가와 자치단체 선정

과거 미국과 일본 및 선진국 중심의 교류에서 브릭스¹⁾, 친디아²⁾ 등 교류폭을 넓히고 다국가·다지역 선정보다 중점국가·중점지역으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류대상 국가 및 지역 선정기준을 ① 행정, ② 서비스, ③ 자원, ④ 상품, ⑤ 자본, ⑥ 기술, ⑦ 노동력, ⑧ 성장잠재력, ⑨ 문화 등으로 세분화하여 재정립하고 교류대상 분야 또한 ① 충청남도 고유한 특색분야, ② 지역이미지 상징으로 승화 가능한 분야, ③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 ④ 공동관심사가 있는 분야, 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 ⑥ 교류대상 국가의 needs가 있는 분야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특히 교류대상국가의 needs가 있는 분야는 사업자본, 인적자본, 지식자본, 인프라, 자연자본, 공공제도적 자본으로 세분화해서 전략을 수립해야한다.

1) 2000년대를 전후해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신흥경제 4국

2) 중국과 인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부르는 용어

〈표 3〉 교류대상국가의 needs 분야

| 분 야 | 내 용 |
|--|--|
| 사업 자본 (Business capital) | 농업, 공업 서비스업에서 사용되는 기계설비 동력 운송수단 |
| 인적 자본 (Human capital) | 사람의 건강 영양 기술 (사람들이 경제적 생산성을 갖추기 위한 전제조건) |
| 지식 자본 (Knowledge capital) | 과학적 기술적 노하우(물리적, 자연적 자본의 증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
| 인프라 (Infrastructure) | 도로 전력 물과 위생 공항과 해항 통신시스템 (사업의 생산성을 규정하는 필수 투입요소) |
| 자연 자본 (Natural capital) | 건강한 생태계와 토양, 경작 가능한 토지, 생물 다양성 (인간사회가 필요로 하는 환경서비스를 제공) |
| 공공제도적 자본 (Public institutional capital) | 상법 사법제도 정부서비스와 경찰 (분업이 평화적으로 작동하고 발전하기 위한 밑바탕) |

2) 성과 중시 매니지먼트 (Result-based management 즉 RBM)

충청남도의 국제교류는 지자체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정 등 국내의 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과 마찬가지로 ‘교류’ 형이며 교류사업의 형태는 인적교류, 문화·스포츠교류, 기술·학술교류, 산업·경제교류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류의 내용을 살펴보면 승인전 사전 교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조인식 참여, 지자체장 취임 축하 방문, 상대 지역의 중요행사 참여, 우수사례 발굴견학, 상대지역에서 우리 자치체가 개최하는 해외 세미나, workshop 참가, 부수적으로 주요 관광지 방문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는 단발성으로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 단절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제협력 활동을 input, output, outcome, impact라는 로직의 흐름에서 그 실적이나 결과(output, outcome, impact)의 달성도로부터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전략이 필요하다. 올바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과중심적 국제협력체제를 확립하고 실적이나 결과에 관한 정보를 행정활동의 관계자에 대해서 공표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설명 책임을 확보해야 한다.

3) 주민참여 활성화

오늘날 지방분권화가 진행되면서 지자체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관주도의 교류가 일반적이다. 그 원인은 국제교류사업이 대부분 주민 발의가 아니라 지자체장의 공약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민의 국제화 역량강화로 귀결되지 못하고 고위 관계자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통제와 분석 없이 전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 민간단체 및 비정부기구(NGO)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국제교류로 전환해야 한다. 시민이 주권행사의 일환으로서 국제화의 주체로 나서고 지자체는 지원보조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근래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위해 민관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이란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정부, 민간기업, 비영리기구, 지역주민 등이 업무를 분담하는 협력관계이다. 이러한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가 중심의 현재의 국제협력 자문위원회와 별도로 민간 주도형으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국제협력 민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4) 국제협력 인재 발굴과 양성

국제협력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인적자원 발굴육성은 매우 중요하다. 1차적으로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민간단체 staff의 국제화 수준을 강화하고 2차적으로는 충청남도 도청의 전 공무원과 도민, 특히 미래에 국제화된 사회의 주역이 될 충청남도 청소년들의 육성이 필요하다. 국제협력 인재의 자질과 능력 향상을 위해 충청남도청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내 기업, 학교와의 협력도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의 외국어 학습 동아리 구성을 적극 장려하고 외국어 구사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각종 contest를 개최하고 시상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교류를 염두에 둔 상황설정 등 실용적 외국어 학습모델을 개발하고 다문화 가정을 구성하는 결혼 이민자의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마인드셋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전 지구촌적 과제에 참여하고 그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시티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5) 국제 발룬티어 활동

최근 국제협력의 주된 조류는 '교류' 형에서 '협력' 형으로의 변화이다. 따라서 충남 도청과 상대국 지자체 간의 봉사단 파견 MOU를 체결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교육, 보건의료, 행정, 농촌개발, 정보통신, 환경,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봉사단의 목적은 협력대상 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과 해당 국가와의 우호 협력 및 인적 교류를 증진하며 세계화를 실현하는 데 실천적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활동은 충남의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충남의 수출기업이 현지에 진출 시 기업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V. 통상지원을 위한 전략

충남은 한국의 성장 동력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제철, 석유화학, LCD 등 견실한 제조업과 IT산업을 토대로 전국수출을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의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국제경쟁력을 바탕으로 흑자를 대폭 만들어내어 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충남 차원에서의 도내 수출진흥을 위한 통상지원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충남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진출에 대한 인식부족과 두려움으로 해외마케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한정적이고, 참여하는 업체(농가)라 하더라도 영세성으로 인해 무역전문직원 채용 등 해외영업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대부분 회사대표 1인이 국내외 마케팅까지 전담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처럼 상품은 좋으나 내수에 머물러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자생력 있는 수출기업으로 육성기 위해서는 통상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실정이다.

충남에서는 제조업 및 농수산물 수출지원, 인삼산업지원 등 통상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종료되면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참여업체의 경우도 무역실무 능력 부족, 언어소통 문제 등을 이유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후관리 인식이 희박하여 사후관리에 비중을 둔 지원시스템으로의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남에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다수가 있지만 이들 대기업과 충남 소재 중소기업과 통상활동 측면에서 협력관계 시스템이 없다. 따라서 이들 대기업의 수출역량을 연계하여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급변화하는 투자통상환경에 따라 투자통상전략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상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외국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하고, 지역 내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타 국가와 교류 및 협력하는 일은 충남의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보다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통상정책의 비전과 발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투자유치를 위한 타겟 기업군을 설정하고 각 기업에 맞추어진 효율적 기업지원시스템과 네트워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도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의 역량을 집중하고 수출지원기관과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관주도의 교류에서 국제협력이 부각되는 시점에 주민의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을 이끌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 또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투자통상정책의 수행을 위해 투자통상 전문인력의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한정된 예산과 인원에서 새로운 전문가를 충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도내 담당자에게 적절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져야하며 적절한 성과의 보상을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부족한 예산, 시간, 인원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통상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투자통상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김양중, 박종찬, 김익성, 오수용, "충남 투자통상의 장단기 발전방안", 충청남도청, 충남발전연구원(미발행), 2009.